

■ 주요 뉴스: 연준 파월 의장 필요 시 통화긴축 강화 3월 FOMC 금리인상 폭은 미확정

-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, 증세를 통한 대규모 재정적자 축소를 계획
- 미국 1월 구인건수, 예상치 상회. 수요 우위의 노동시장 지속 시사
-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, 일부 ECB 통화위원의 매파적 발언은 불필요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 주요 경제지표 등이 영향

주가 상승[+0.1%], 달러화 강세[+0.1%], 금리 상승[+3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파월 의장의 금리인상 폭 미확정 발언 등으로 등락 지속
유로 Stoxx600지수는 일부기업의 양호한 실적 전망 등으로 0.1%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 등이 배경
유로화가치는 약보합, 엔화는 0.2% 절하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속적인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반영
독일은 경기부진 우려 등으로 5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14.9원, -6.5원) 0.3% 하락, 한국 CDS 보합

주 가					환 율					
		3/8일	3/7일	전일대비			3/8일	3/7일	전일대비	
주 가	미국	3,992.0	3,986.4	0.14%	국채금리 10y	미국	3.99%	3.96%	3bp	
	유럽	460.99	460.60	0.08%		독일	2.65%	2.69%	-5bp	
	중국	3,283.2	3,285.1	-0.06%		영국	3.77%	3.82%	-6bp	
	일본	28,444	28,309	0.48%		CDS 5y	한국	42bp	42bp	0bp
	한국	2,431.9	2,463.4	-1.28%			중국	70bp	68bp	2bp
환 율	달러지수	105.71	105.62	0.09%	위험지표	EMBI+	-	384	-	
	유로화	1.0545	1.0549	-0.04%		VIX	19.11	19.59	-2.45%	
	엔화	137.36	137.16	-0.15%		WTI유	76.66	77.58	-1.19%	
	위안화	6.9592	6.9662	0.10%	원자재	구리	404.3	398.7	1.42%	
	원화	1,321.4	1,299.4	-1.66%		금	1,813.8	1,813.5	0.02%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연준 파월 의장, 필요 시 통화긴축 강화. 3월 FOMC 금리인상 폭은 미확정

- 파월 의장은 상황에 따라 최종금리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, 금리인상 속도 역시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혀 전일과 동일한 의견을 피력. 다만 이와 관련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강조
- 또한 3월 FOMC에서의 통화정책 결정은 그 전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이루어질 것이며, 금리인상 속도를 높여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이번 주와 다음 주 공개되는 고용보고서 및 물가지표를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
- 경기침체 회피를 위해 금리인상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제시할 수 없다고 발언. 아울러 금년 금리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, 이를 통해 그 동안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
- 주요 경제지표가 양호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연준은 단호하게 0.50%p 인상에 나설 전망. 그 동안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제활동 영향이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한다면, 향후 미국의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(Main Street Research의 James Demmert)
- 한편 리치몬드 연은 바킨 총재는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. 노동시장은 수요 우위 상황이 고착화되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, 증세를 통한 대규모 재정적자 축소를 계획

-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한 예산에 따르면,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3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축소에 나설 방침. 이는 이전의 재정적자 축소 목표(2조달러)를 크게 확대한 것이며,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추진

■ 연준 베이지북,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지만 향후 완화될 것으로 기대

- 지역 연은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, 기업들은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. 또한 작년보다 기업활동은 증가했고 노동시장은 탄탄하지만, 고물가 영향으로 가계소비는 둔화되고 기업의 이익률 확대는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

■ 미국 1월 구인건수, 예상치 상회. 수요 우위의 노동시장 지속 시사

- 1월 구인건수는 1082만건으로 전월(1123만건) 대비 줄었으나 예상치(1060만건)를 넘어서면서 역사적 기준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. 최근 일부 대기업이 해고에 나서고 있으나 노동시장 전반은 수요가 강한 상황(Bloomberg Economics)
- 2월 ADP 민간고용은 24.2만건으로 전월(11.9만건) 및 예상치(20.0만건) 상회. 부문별로는 레저 및 금융부문이 크게 증가. 이는 연준의 적극적인 통화긴축에도 노동시장이 여전히 수요 우위 상태임을 의미. 이는 경기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물가안정을 원하는 연준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
- 한편 1월 무역수지는 683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전월(-672억달러) 대비 증가. 이번 결과는 달러화 강세 및 상대적으로 양호한 구매력으로 인한 수입 증가 등이 주요 원인. 글로벌 공급망 차질 개선 등도 무역규모 증가에 기여

■ 유로존 4/4분기 성장률(확정치), 속보치 대비 소폭 하락. 경기침체 회피 기대 지속

- 작년 4/4분기의 전기비 및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각각 0.0%, 1.8%로 속보치(각각 0.1%, 0.9%)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. 그러나 이번 결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는 기술적 경기침체 회피가 가능하다는 기대가 유지

■ 이탈리아 중앙은행 총재, 일부 ECB 통화위원의 매파적 발언은 불필요

- 비스코 총재는 일부 통화위원들이 큰 폭의 금리인상과 해당 수준의 금리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데, ECB 통화위원들은 그와 같은 선제적 지침 제시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언급. 지금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이므로 ECB는 매 회의 때마다 상황을 고려하여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

■ 영란은행 딥그라 통화위원, 금리인상은 이미 어려운 경제에 충격을 가할 우려

- 신중하게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하며,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연쇄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평가. 오히려 과도하게 긴축적인 정책은 실질적인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3/9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3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중국 2월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스프레드 확대, 경기침체 우려를 증폭 - 블룸버그

(Deepest Bond Yield Inversion Since Volcker Suggests Hard Landing)

- 최근 연준 파월 의장의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발언 등으로 2년물 국채금리는 '07년 이후 최고치 기록. 이에 장단기(2Y-10Y) 국채금리 스프레드는 1981년 이후 최대 수준까지 확대되며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
- 과거의 경우에도 경기침체는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후 12~18개월 이내에 발생. 일부에서는 최종금리가 6%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, 투자자들 역시 미국의 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을 대비하는 모습이 증가
- 다만 또 다른 일부에서는 여전히 경기침체 회피가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으며, 장기 국채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도 다소 위안거리가 된다고 평가

■ 연준의 통화정책, 물가안정 목표 달성 가능한 궤도에 진입 - Financial Times

(Fed now on right track to price stability)

- 연준은 한 때의 잘못된 진단으로 기록적인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지만 작년부터 공격적인 통화긴축으로 대응. 긍정적인 점은 현행 통화정책 궤도가 유지되면 향후 물가안정 목표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(콜롬비아 대학의 Alfred Lerner)
- 그러나 연준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금리를 1%p 추가 인상하는 동시에 내년까지 5% 수준 이상의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. 또한 완화정책으로의 조기 전환에도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. 다만 이러한 상황은 연준의 정책실패 확보에 도움이 되지만, 경기침체 및 실업률 상승을 유도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

■ 라우 전쟁, 이란-이라크 전쟁처럼 긴장이 장기화될 소지 - 블룸버그

(Putin and Saddam Hussein Have a Lot in Common)

-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△전쟁의 모호한 최종목표 △상대국의 군사력 및 투지 과소평가 △전쟁의 손실 묵인 등 다양한 면에서 후세인의 이란 침공과 비슷하며, 미국의 모호한 역할이 두 전쟁의 장기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유사
- 이란은 소모전 끝에 이라크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으며, 후세인은 전쟁으로 인한 손해에도 불구하고, 자국의 승리를 자축. 푸틴 역시 정복한 영토를 유지할 수 있다면 스스로를 전쟁의 승리자로 여기고 독재를 공고히 할 가능성. 이란-이라크 전쟁이 암시하는 바가 있다면 '빠른 평화를 위한 원칙은 없다'라는 사실

■ 연준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,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초래 - 블룸버그

(Powell's Comments Unleash Unsettling Volatility)

- 파월 의장이 최종금리 수준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. 이러한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유동적인 경제 여건에 대한 연준의 정책 리스크 이해 부족, 통화정책 결정의 과도한 경제지표 의존 등이 거론
-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3월 FOMC에서의 0.50%p 인상 가능성이 크게 증가. 만약 연준이 현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경우 금융불안 뿐 아니라 경기침체와 같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소지. 그러나 연준이 기존의 선제적 지침을 유지 혹은 조정해도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

■ 미국의 양호한 소비지출, 금리인상 등으로 지속 여부는 불확실 - 블룸버그

(Retailers Know Consumers' Shopping Spree Won't Last)

■ 미국의 석유생산, 셰일 유정 감소 고려 시 정점을 통과 중인 것으로 추정 - WSJ

(U.S. Shale Boom Shows Signs of Peaking as Big Oil Wells Disappear)

■ 미국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, 외국 증시의 상대적 저평가 등에 기인 - WSJ

(International Stocks Lure Investors Seeking Bargains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